

'안전불감증'을 갖고 있습니다.

✎ 변백선 기자 | ⓒ 승인 2016.06.09 15:32



▲ ⓒ 변백선 기자

오늘은 구의역 사고 피해자 김군의 발인이었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은 김군은 5월 28일 서울 지하철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수리하다 사고로 숨졌다.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영정사진이 됐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처럼 영정 속 김군도 교복을 입은 채 웃고 있었다. 김군의 관이 운구차에 오르는 모습에 유족들은 오열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김군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녹초가 되어 땀과 먼지를 씻을 기력도 없이 침대로 향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의 자회사가 된다며 자회사가 되면 준공무원이라 월급도 좋아지고 정년도 63세 보장된다고 기뻐했다. 그 기쁨도 잠시 사측의 '안전불감증'과 '반칙을 해서라도 남을 짓밟고 올라서면 된다'는 태도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지하철 2호선 라인에 설치된 안전문(스크린도어)에는 '안전으로 최우선으로 하는 Seoul Metro'라는 글씨가 붙어있다. 안전문(스크린도어) 정비 업체인 은성PSD 사무실 정문 앞에도 '안전수칙 준수의 생활화'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메뉴얼은 '2인1조' 작업을 명시했다. 김군은 고장신고를 접수 받고 때 홀로 구의역으로 이동해 작업했다. 김군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도 다른 역에서 혼자 일을 했다. 하지만 지하철 1~4호선 서울메트로는 힘없는 약자에게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기 바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실은 밝혀졌다. 김군의 잘못으로 몰고간 서울메트로의 끝내 공개 사과를 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군은 가방속에 있는 컵라면도 제때 먹지 못하고 일해야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월급 140여 만원을 받으면서 꿈을 키우던 청년이었다. 김군 어머니는 사고 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아이를 기르면서 책임감이 강하고 떳떳하고 반듯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에게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며 키우지 않겠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것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배운 대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우리사회는 책임감이 강하고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에게 개죽음만 남을 뿐입니다"라고 이와 같이 말했다.

변백선 기자 n7349794@naver.com